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4. 10.(목) 배포 2025. 4. 10.(목) 11:00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 대상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무료 개방

- 산불 피해지역민 심신안정·일상회복 위해 80일간 수목원 무료 개방 -
 - 심리적 충격 및 트라우마 극복 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
 - 산불피해지 조속한 복원 위해 'ESG 사업가이드, 산불피해 특별판' 제작 -

최근 경남북·울산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과 이재민들에게 수목원·정원 치유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경상권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재난지역민의 정서적 안정과 침체된 지역관광·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수목원·정원 치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우선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시·군(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산청군, 하동군, 울주군) 주민을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무료로 개방한다. 신분증 또는 거주지가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시하면 수목원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산불 특별재난지역 보건소와 협력해 힐링 프로그램인 '더-쉼(休)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산불피해로 상실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수목원 힐링 서비스를 제공해 정서적 위로와 심리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교육운영실(☎054-679-084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세종수목원도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차량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 학교 등을 방문하는 '반려식물 키트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뿐 아니라 산불진화요원과 소방대원, 의료 봉사자 등에 대해서도 '향긋생긋! 허브체험', '나의 그린 수목원' 해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 및 참가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국립세종수목원 교육운영실(☎044-251-0002)로 하면 된다.

심상택 이사장은 “산불피해 주민들이 수목원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며 “산불피해 주민의 아픔의 상처를 나누고 공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ESG 협력사업’을 기획·운영한다. 사업내용은 피해지역민 심리회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회복형 공동체 치유정원 조성 등 대형 산불로 황폐해진 지역의 물리적·심리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산림생태복원사업으로 구성됐다.

담당 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지원실	책임자	실 장	이형덕	(054-679-2702)
		담당자	주 임	황성운	(054-679-0502)
담당 부서	국립세종수목원 교육운영실	책임자	실 장	노희은	(044-251-0249)
		담당자	팀 장	지용훈	(044-251-0253)





1. 2024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개화한 튜립전시